

창립 15주년에 즈음하여



이 상 규 이사장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통해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1973년 5월 15일자로 창립되어 오는 5월로 창립 1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립 당시 1만여건에 불과하던 특수건물 대상은 70년대 이래의 고도경제성장에 힘입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 지난 3월말로 3만 1천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이들 특수건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화재보험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왔습니다.

지난 1976년 특수건물 대상지역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4대도시에서 7대도시로 확대될 때만 해도 특수건물의 전반적인 방재시설은 극히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협회가 그동안 철저한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온 결과 전기시설은 50%에서 91%로 개선되는 등 특수건물의 방재시설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대형 화재발생률과 손해율이 낮아지거나 많이 감소됨으로써 특수건물의 보험료는 81년과 84년 두 차례에 걸친 효율인하로 업종별로 최고 30%까지 할인혜택이 주어져 보험료 부담경감에도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의 각종 시험시설을 갖춘 방재시험소를 지난 86년 4월 11일에 설립하고 시설의 과학화와 국제화를 위한 투자를 계속하는 한편 방화제품의 인증시험 업무와 수탁시험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협회는 88서울올림픽 행사를 앞두고 예상되는 관련시설들의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비롯한 각종 방재활동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88회계연도에는 방재시험소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종합방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방재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안정된 복지국가가 이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수건물 소유주 여러분과 손보업계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이 되는 한 국가방재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저희 협회 임직원들의 활동은 잠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88. 4. 1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이상규